

[별지서식 제1호 앞면] 본 광고사전검토폰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접수번호	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				처리기간
01-01-C-2208029					7일
신청자명	(주)기독교연합신문사	대표자	양병희	사업자등록번호	114-81-25861
신청자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21 5층			연락처	담당자명: 김진화
					연락처: 010-2771-4002
					팩스: 02-585-6684
광고 상품명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광고주명	기독교연합신문사	광고매체	케이블 TV
대행사명	기독교연합신문사	제작자명	기독교연합신문사	시간	60초 (A안)
출연모델				성우	
배경음악	곡명 : 가수 :				
참고사항			상업문 내용(자막 및 멘트)		
광고내용			멘트] 학문은 부흥되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왜그러냐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식이 말씀화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마르니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가능합니다. 설교할 때 주석과 설교집을 한 시간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두 시간 본다면 기도를 세 시간 해야 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심의구분	초심 O				
	수정심				
변경내용					
첨부파일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_New Book_final.avi				
비고					

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

2022년 6월 22일
신청인 (주)기독교연합신문사

심의의결	심의결정	방송적합	2022년 6월 2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22-N1-18-76	
	기타	기독교방송	

[별지서식 제1호 뒷면] 본 광고사전검토표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상업문 내용(계속)			
절대로 학문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자막] 백석학원 건학 45주년 기념 / 장종현 박사 지음 / 백석정신아카데미 좌상단)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상단고정)"광고방송" 한국교회를 향한 장종현박사의 피끓는 외침 신학교수, 신학생, 목사 목회사역자들의 필독서 저자 장종현 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 백석대학교 총장 백석학원 설립자 전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면번호	2

심의의결	심의결정	방송적합	2022년 6월 2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22-N1-18-76	
	기타	기독교방송	